

정조가 홍취영에게 보낸 어찰에 나타난 『四部手圈』 편찬·교정 내용과 관련 기록 연구*

A Study of the Compilation and Proofreading of *Sabusugwon* as Recounted
in Jeongjo's Letters to Hong Chui-yong

강 순 애 (Kang, Soon Ae)**

◁ 목 차 ▷

1. 서 론	3.2 『양경수권』
2. 홍취영의 생애와 활동	3.3 『오자수권』
3. 어찰에 나타난 『사부수권』의 편찬·교정 내용과 관련 기록	3.4 『팔가수권』 및 『육고수권』
3.1 『삼례수권』	4. 결 론
	<참고문헌>

< 초 록 >

본 연구는 홍취영의 생애와 활동을 개관한 다음 정조가 홍취영에게 보낸 어찰에 나타난 『사부수권』의 편찬·교정 내용과 그와 관련된 기록들을 연계하여 편찬·교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홍취영은 영조 35년(1759)생으로 정조 10년(1786)부터 정조 24년(1800)까지 사옹, 금천현령, 강서현령, 전부로서 정조를 도와 측근에서 활동하였다. 『사부수권』은 『삼례수권』 6권, 『양경수권』 4권, 『오자수권』 10권, 『팔가수권』 8권 및 『육고수권』 2권으로 총 30권이다. 『삼례수권』은 정조가 22년(1798) 6월부터 10월 사이에 비권하고, 10월 17일에 홍취영에게 발췌본 전체의 교정을 부탁하여 10월 24일 전에는 돌려받았다.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초계문신들의 교준 및 서역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양경수권』은 정조가 22년(1798) 9월 25일~29일, 10월 2일~26일까지 비권하였다. 정조 21년(1797) 10월 22일에 『사선』의 교정을 시켰으니 『과정일표』에 제시된 정조 22년(1798) 9월 25일~29일, 10월 2일~26일의 기간보다 앞서 홍취영과 그의 부친 홍낙입에게 수비 작업의 일차 교정을 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오자수권』은 정조가 22년(1798) 4월부터 10월까지 비권하였고, 그해 7월 4일과 7월 6일에 홍취영에게 『주서』와 『대전』의 교정을 지시하였다.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초계문신의 교준 및 교정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10월 24일에는 사자관 25인이 서역을 마쳤다. 『팔가수권』 8권은 정조가 21년(1797) 10월부터 12월까지 비권하였다. 10월 22일 비권하는 중에 홍취영에게 보내서 교정을 하도록 하였고, 12월 22일에는 초계문신이 교준하였으며, 이듬해인 2월 23일에는 서역한 사자관들에게 물목을 하사하였다. 『육고수권』 2권은 정조가 22년(1798)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비권하였는데, 교정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要語: 정조, 홍취영, 정조어찰, 『사부수권』, 교정기록

* 본 연구는 2018년도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문헌정보전공 교수(h4085@hansung.ac.kr)

투고일: 2019년 5월 24일 최초심사일: 2019년 5월 27일 게재확정일: 2019년 6월 7일
서지학연구, 제78집, 127-148,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78.127]

<ABSTRACT>

This study will look into the life and work of Hong Chui-yong, then examine in detail the compilation and proofreading of *Sabusugwon* as recounted in King Jeongjo's letters to Hong Chui-yong, the process of compilation and proofreading as related records were connected.

Hong Chui-yong was born in the 35th year of Yeongjo's reign (1759) and served by Jeongjo's side respectively as Sayong, Gumcheonhyeonryeong, Gangseohyeonryeong and Jeonbu from the 10th year (1786) to the 24th year of Jeongjo's reign (1800). *Sabusugwon* consists of 30 volumes in total: 6 volumes of *Samryesugwon*, 4 volumes of *Yangyeongsugwon*, 10 volumes of *Ojasugwon*, 8 volumes of *Palgasugwon*, 2 volumes of *Yukgosugwon*. Between June to October of the 22nd year of his reign (1798), Jeongjo himself marked the bijeom (blue point), and kwonjeom (red circle), in the important passages of *Samryesugwon*. On October 17, Jeongjo requested Hong Chui-yong to proofread the entire excerpt edition and had it returned on October 24. From October 24 to October 28, the Chogyemunsin went through an intensive process of proofreading and correct transcription. For *Yangyeongsugwon*, Jeongjo marked the bijeom and kwonjeom from September 25 to 29 and October 2 to 26 in the 22nd year of his reign (1798). Since Jeongjo had ordered the proofreading of *Saseon* on October 22 in his 21st year of reign (1797), we can assume that he ordered Hong Chui-yong and his father Hong Nak-im to mark bijeom by hand and to do the first proofreading earlier than the time indicated in the process schedule, which was from September 25 to 29 and October 2 to 26 in the 22nd year of Jeongjo (1798). Jeongjo marked the bijeom and kwonjeom of *Ojasugwon* from April to October in the 22nd year of his reign (1798), and in the same year on July 4 and July 6, directed Hong Chui-yong to proofread the *Juseo* and *Daejeon*. From October 16 to 19 there was an intensive proofreading by the Chogyemunsin, and on October 24 twenty-five Sajagwans completed the transcription. Jeongjo marked the bijeom and kwonjeom for the eight volumes of *Palgasugwon* from October to December in the 21st year of his reign (1797). On October 22, in the middle of the bijeom and kwonjeom marking process, Jeongjo sent the volumes to Hong Chui-yong for proofreading. Proofreading by the Chogyemunsin was done on December 22 and on February 23 of the following year, Jeongjo gave the book to the Sajagwans who transcribed. Jeongjo marked the bijeom and kwonjeom in the two volumes of *Yukgosugwon* from April 12 to 21 in the 22 year of his reign (1798), but no records remain of the proofreading.

Key words: Jeongjo, Hong Chui-yong, Jeongjo's letters, *Sabusugwon*, records of proofreading

1. 서론

정조(正祖, 1752~1800, 재위 1776~1800)¹⁾는 규장각을 중심으로 경, 사, 자, 집의 서적을 체계적으로 선집하여 편찬 간행함으로써 조선 후기 문예흥륭을 이끈 군주로 높이 평가된다.

『사부수권』은 정조가 22년(1798) 11월 30일 학자들에게 유교의 전통을 확립시키고 문풍을 진작하기 위해 사부(四部)의 문자의 강(江)을 건너는 데 필요한 대일통(大一統)의 간략판인 30권의 필사본으로 편집되었다.

정조는 경부에서 『주례』·『의례』·『예기』, 사부에서 『사기』·『한서』, 자부는 주돈이·정호·정이·장재·주희, 집부에서 당송팔가와 육지까지의 글에 대하여 이미 부전을 달아 권점을 찍고, 권점을 찍은 것을 초선하여 마침내 한 질을 이루었다.

정조는 『과정일표(課程日表)』를 만들어 『사부수권』을 수권하였다. 정조는 21년(1797) 10월부터 22년(1798) 10월까지 187일간의 작업 일정으로 경·사·자·집에 해당하는 1,690여 편의 글 중에서 4,670여 단락의 문장을 절록하여 완성시켰다.²⁾

이 책의 교정 작업과 관련하여 규장각의 초계문신들이 동원되었는데,³⁾ 교정에 관계한 사람들 중 일부가 『내각일력(內閣日曆)』에 언급되었다. 또한 정조가 외사촌 동생인 홍취영(洪就榮, 1759~1822 이후)에게 보낸 어찰 및 관련 글⁴⁾에 일부 교정내용이 남아 있다.

홍취영이 정조가 그에게 내려 준 서찰과 시문 그리고 유지(諭旨) 161장을 4첩으로 나누어 장정하면서 쓴 순조 6년(1806) 7월 15일의 발문을 참조하면,

“신이 『사부수권(四部手圈)』과 『대학유의(大學類義)』 교정보는 일에 참가하였을 때를 아직도 기억한다. 선왕께서는 친히 책을 가져와 직접 보신 곳마다 권점(圈點: 둥근 점)을 찍었다. 깊이 음미하면서 하교를 내리기 전에, 내가 갑자기 대답하기를 ‘모절(某節)은 모단(某段)으로 산삭해서 붙여야 적당하고, 모구(某句)는 모조(某條)로 옮겨 편찬함이 적합하다’고 하니, 선왕께서 빙그레 미소를 띄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문인의 생각과 같으니, 너의 총명함이 그러하다. 이 책이 만약 완성되면 너의 공로 역시 적지 않다’고 하였다.”⁵⁾라고 하였다.

1) 정조(正祖, 1752~1800, 재위 1776~1800)의 행적 및 현존하는 어찰의 종류에 대해서는 강순애, “정조가 홍낙임에게 보낸 어찰에 나타난 어정서 편찬·간행 및 반사 내용과 관련 기록 연구,” 『서지학연구』 77(2019. 3), 105-106.에서 간략하게 다루었다.

2) 趙東永, “正祖의 四部手圈 小考,” 『한국한문학회연구』 45(2010), 15.

3) 정조 찬, 『홍재전서(弘齋全書)』 권165 『일득록(日得錄)』 5 文學 5.

“... 予於機務之暇 不輟三餘之工 毋論經史 每冬必了得一帙書 歲以爲常 今冬 偶因手圈之役 令校閱之抄啓文 臣 排日課讀 另置冊子 記其所讀 名之曰不欺錄 蓋寓朱子與魏應仲書之意 不欺者 仰不欺天 俯不欺心也 此事雖小 可以喻大 亦出於作成之苦心 直提學臣李晚秀戊午錄 ... ”

4) 임제완 편역, 하영희 교열, 『정조대왕의 편지글』 (서울: 리움, 2004), 3.에 의하면,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된 것으로 1792년 2월 12일부터 1800년 5월 1일까지 총 41통이다.

5) 홍취영, “순조 6년(1806) 7월 15일 발문,” 『정조대왕의 편지글』 (서울: 리움, 2004), 102-108.

“尙記臣參校四部手圈 施及大學類義 先王親持卷 指點圈乙處 沈吟未及教 賤臣率爾對曰 某節宜刪付某段 某句合移編某條 先王莞爾笑曰 文人意思同 爾聰明乃爾 是書若善成 爾功亦當不少 ... ”

이 글의 내용은 홍취영이 『사부수권』과 『대학유의』 두 책의 교정 과정에 관여하였음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조가 홍취영에게 보낸 어찰 및 관련 글 40통에는 『사부수권』의 교정과 관련된 내용만이 일부 남아 있다.⁶⁾

이와 같이 『사부수권』은 정조 22년(1798) 11월 30일 총 30권의 필사본으로 편집되었고, 순조 1년(1801) 『어정사부수권』의 이름으로 25권 12책이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간행에 있어서 감인은 규장각제학 김조순(金祖淳), 교정은 검서관 성해응(成海應), 주자감관은 유명표(柳明杓)가 담당하였다.⁷⁾ 『어정사부수권』은 순조때 간행된 책이므로 여기서는 정조조에 이루어진 『사부수권』의 편찬 및 교정에 관계된 것만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취영의 생애와 활동을 개관한 다음 정조가 홍취영에게 보낸 어찰에 나타난 『사부수권』의 편찬·교정 내용과 그와 관련된 기록들을 연계하여 편찬·교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 연구는 향후 서지학, 기록관리학, 역사학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2. 홍취영의 생애와 활동

홍취영은 정조의 외조부인 홍봉한(洪鳳漢, 1713~1778)의 셋째 아들 홍낙임(洪樂任, 1741~1801)의 장자이다. 그의 기록은 『홍재전서(弘齋全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일성록(日省錄)』, 정조의 어찰 등에 단편적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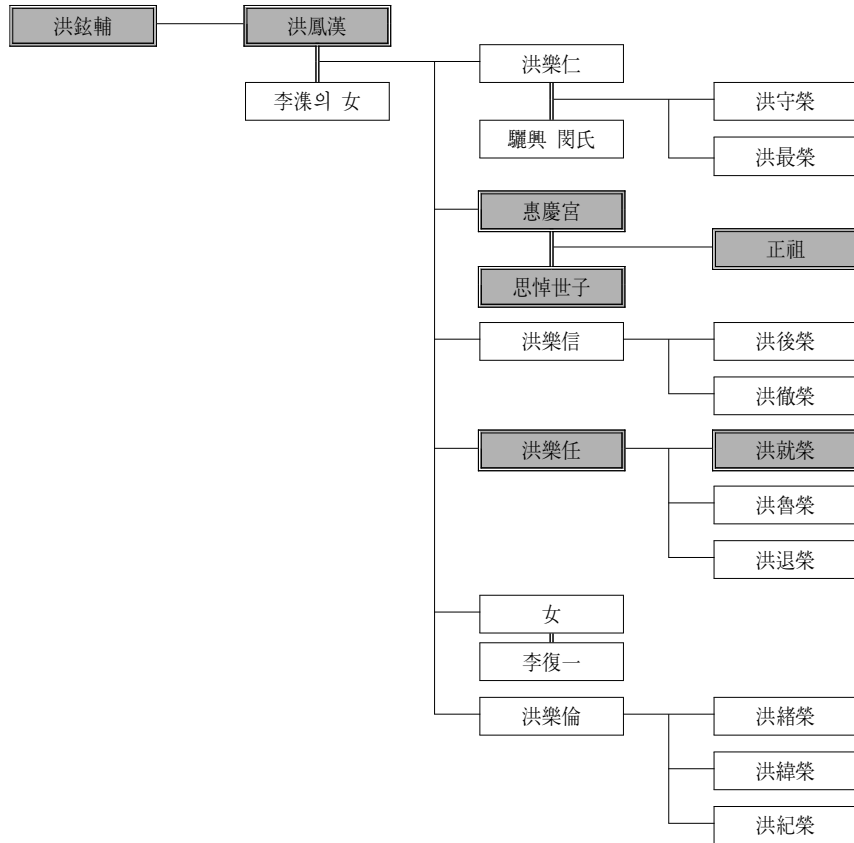
그의 조부인 홍봉한에게는 홍낙인(洪樂仁, 1729~1777),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 1735~1815), 홍낙신(洪樂信, 1739~1796), 홍낙임(洪樂任, 1741~1801), 홍낙운(洪樂倫, 1750~1813)의 4남 1녀가 있다. 홍낙인에게는 홍수영(洪守榮)과 홍취영(洪最榮), 혜경궁 홍씨에게는 외손인 정조, 홍낙신에게는 홍후영(洪後榮)과 홍철영(洪徹榮), 홍낙임에게는 홍취영, 홍노영(洪魯榮), 홍퇴영(洪退榮), 홍낙운에게는 홍서영(洪緒榮), 홍위영(洪緯榮), 홍기영(洪紀榮)이 있다.

이들의 관계도를 <그림 1>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임재완 편역, 하영희 교열, 『정조대왕의 편지글』 (서울: 리움, 2004)을 참조하면, 정조가 홍취영에게 보낸 어찰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홍취영이 다른 책의 편집에 관여한 것으로 되어 있거나 책의 교정에 있어서 어느 책인지 정확히 밝히지 못한 것은 수정하여 인용하고자 한다.

7) 『일성록(日省錄)』 순조 1년(1801) 7월 19일(계사) 기사.
“御定四部手圈印役時 監印閣臣以下施賞有差 因奎章閣監印閣臣 提學 金祖淳別單教以內下大鹿皮一令賜給 又因刊本校正檢書官 成海應別單教以相當職調用 又因印役時鑄字監官 柳明杓別單教以前後效勞甚多 亦有昔日承傳善地瓜近邊將作窠口傳擬入事分付該曹.”

8) 구순옥, “외조부 홍봉한에게 보낸 정조의 편지 - 야마구치 현립도서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 『고전번역연구』 8(2017. 12), 204.의 가계도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그림 1> 홍봉한 집안 가계도

홍봉한의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익여(翼汝), 호는 익익재(翼翼齋)이다. 홍봉한은 영조 11년(1735)에 생원시를 거쳐 음보(蔭補)로 참봉이 되었다. 영조 19년(1743) 그의 딸이 세자빈에 책봉되면서 외척세력가로 성장해 나갔다. 같은 해 그는 문과에 급제해 사관이 되었다. 그 후 광주 부윤, 어영대장, 예조 참관, 비변사 당상관, 구관당상, 평안도 관찰사, 좌참찬 등을 지냈다. 영조 37년(1761)에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⁹⁾

홍낙임은 홍봉한의 셋째 아들이며 자는 숙도(叔道)이다. 영조 45년(1769)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홍문관에 등용되었다. 그 뒤 정언·문학·사서 등을 두루 거쳐 승지에 올랐다. 순조 1년(1801) 신유박해 때 체포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그 해 5월 사사되었다.¹⁰⁾

홍취영은 영조 35년(1759)에 홍낙임의 장자로 태어났으며 자는 희보(熙甫)이다. 정조 10년(1786)

9) Daum 백과. 재상열전, [검색일자 2019. 4. 5.]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63XX65700022>>

10) Daum 백과. 홍낙임, [검색일자 2019. 6. 3.]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64007>>

5월 11일 왕세자가 창덕궁 별당에서 홍역으로 세상을 떠났다.¹¹⁾ 그해 5월 13일 예조에서 복제(服制)를 논의하여 기년(暮年)으로 정하였다.¹²⁾ 그해 윤7월에는 혼궁도감의 당상과 낭청 이하, 여러 집사와 차비들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는데, 이때 홍취영은 습렵에 관계하면서 벼슬이 사용(司勇)이었다.¹³⁾ 정조 11년(1787) 5월 11일 혼궁(魂宮)의 향관(享官), 묘관(墓官), 분사(分司) 및 원역(員役)들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하교하는 내용 중에 사용(司勇) 홍취영·홍취영·홍후영은 14삭(朔)이니 모두 승서하되 아직 부직(付職)하지 않은 자는 조사에 조용하라고 하였다.¹⁴⁾ 정조 16년(1792) 2월 12일의 어찰에는 정조는 금천(衿川: 지금의 서울시 금천구·구로구와 경기도 광명 지역) 현령으로 있던 홍취영에게 지방행정을 잘 보고 있는지 묻고, 고을이 작다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지방관리의 책임을 철저히 실행함이 지극히 좋을 듯하다고 격려하였다.¹⁵⁾ 정조 16년(1792) 4월 30일에 강서(江西: 평안도 지역의 강서읍, 일명 무학(舞鶴)이라고도 한다.) 현령이 되었다.¹⁶⁾ 정조가 홍취영에게 자주 연락했던 시기이다. 그중 몇 가지를 추려보면, 그해 6월 16일 어찰에서, 정조가 홍취영이 상경했다는 소식을 듣고, 강원도 인삼 2냥, 경상도 인삼 1냥, 녹용 3대, 후추 6되, 다양한 색깔의 부채 60자루, 선향 1개 등을 물목으로 보냈다.¹⁷⁾ 정조 17년(1793) 12월 20일 어찰에는 경모당(景慕堂: 사도세자를 모시는 사당)에 제물 보내는 일을 12월 25일로 정하였고, 성대한 의식을 하고자 하며 각 파의 자손들은 오든 오지 않든 간에 모두 명단을 올렸으니 함께 마음을 합치길 바라고 여러 사람들은 나란히 말고삐를 잡고 참석함이 좋겠다고 마음을 전하였다.¹⁸⁾

정조 19년(1795) 11월 11일 어찰에는 홍취영에게 마땅한 벼슬자리도 마침 얻기가 어려워서 다시 관직을 내림이 아직도 지체되었으니 매우 민망하다고 하였다.¹⁹⁾ 정조 21년(1797) 5월 1일의 어찰에

- 11) 『정조실록(正祖實錄)』 21권, 정조 10년(1786) 5월 11일(계축) 1번째 기사.
“癸丑 王世子薨 世子症候轉劇 設侍藥廳 遣大臣 再禱于社稷宗廟 是日未時 薨逝于昌德宮之別堂 ….”
- 12) 『정조실록(正祖實錄)』 21권, 정조 10년(1786) 5월 13일(을묘) 3번째 기사.
“… 禮曹遂以殿下服齊衰暮年議定 內殿服及百官服 請并依戊申禮 從之 ….”
- 13) 『일성록(日省錄)』 정조 10년(1786) 윤7월 20일(신묘)조.
“教曰 魂宮都監都提調 領敦寧 洪樂性 鞍具馬一匹面給 … 襲斂時宗戚執事 前僉正 洪義榮 金持默 前主簿 洪守榮 司勇 趙觀鎮 洪最榮 洪就榮 洪後榮 奉事 趙應鎮 下玄室時宗戚執事 錦城尉朴明源 僉正 金持默 結喪時宗戚執事 奉事 趙應鎮 輿士軍及假別監 都檢舉別軍職具純 王漢禎 結喪差備 前縣監 具善德 李海柱 嘉善丁遇泰 折衝金守儉 贊笏執事 副司直李時秀 各半熟馬一匹賜給 ….”
- 14) 『일성록(日省錄)』 정조 11년(1787) 5월 11일(정축)조.
“魂宮 享官 墓官 分司及諸員役 施賞有差 … 司勇 洪就榮 洪最榮 洪後榮十四朔 并陞敘未付職者 初仕調用 ….”
- 15) 정조, “정조 16년 2월 12일 어찰,” 『정조대왕의 편지글』 (서울: 리움, 2004), 12-15.
“衿川鈴閣 卽傳 … 暄煦灑寒 視篆佳迪 … 無以所而忽之 克進分憂之責 ….”
- 16) 『일성록(日省錄)』 정조 16년(1792) 4월 30일(무진)조.
“以林蕃喆爲大司諫 洪就榮爲江西縣令 尹序東爲江東縣監 李洛秀爲衿川縣監.”
- 17) 정조, “정조 16년 6월 16일 어찰,” 『정조대왕의 편지글』 (서울: 리움, 2004), 16-17.
“江西見此 … 聞以上京 … 江蓼二兩 羅蓼一兩 鹿茸 三對 胡椒 六斗 各色扇 六十柄 扇香 一介.”
- 18) 정조, “정조 17년 12월 20일 어찰,” 『정조대왕의 편지글』 (서울: 리움, 2004), 18-19.
“江西見此 … 慕堂致脩 卜吉於廿五 兼宣華溢 … 各派子孫進不進 皆令捧單 … 須與洽也 諸人聯轡赴席爲可 ….”
- 19) 정조, “정조 19년 11월 11일 어찰,” 『정조대왕의 편지글』 (서울: 리움, 2004), 26-27.
“江西 照至 … 當窠適難 甄復尙遲 悶甚 ….”

는 곧 벼슬을 내릴 것이니 임명을 기다리라고 하였다.²⁰⁾ 정조 22년(1798) 전부(典簿: 조선시대 종친부에 두었던 종5품직)로서 그의 조부인 홍봉한의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 고(故) 목사 홍수영은 그 집안의 증조를 계승한 종손으로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들이 아직 어려 제사를 주관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정조는 홍취영이 주 문공 집안의 고사에 따라 봉조하의 본체로 들어가 살면서 그 제사를 대신하여 받들면서 장손이 장성하기를 기다리도록 하였다.²¹⁾

순조 즉위년(1800) 7월 4일 대왕대비가 언서로 하교하여 홍용한·홍준한·홍낙임·홍낙륜·전직장(直長: 조선시대 각 관서의 전곡·비품 등의 출납실무를 주관하던 종7품 관직) 정의·홍취영·홍서영·홍후영과 전 부호군 조관진, 전 군수 조용진을 아울러 종척의 집사에 차임하였다.²²⁾ 하지만 순조 1년(1801) 5월 25일 오정원이 상소하여 이인·홍낙임 및 윤행임·정민시·서명선의 죄를 진달하고, 대계에 윤택하여 양법을 혼쾌하게 펼 것을 청하였다. 또한 전 주부 홍취영에게 우선 도배(島配)의 전형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²³⁾ 결국 홍낙임은 정순왕후에 의해 천주교신자 오석충과 교유했다는 것과 혜경궁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의 혐의로 제주도에서 사사되었다가 순조 7년(1807)에 복관되었다.²⁴⁾ 홍취영의 기사가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은 순조 22년(1822) 강원도 암행어사 홍학연이 서계를 올려, 평해 전전 군수 이유경 등과 양구 현감(楊口縣監) 홍취영의 다스리지 못한 정상을 논하니, 모두 경중에 따라 처벌하게 하고, 또 통천 군수 서병순의 치적을 논하니, 승서의 은전을 시행하라고 하였다.²⁵⁾ 이후 홍취영의 기록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아 물년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20) 정조, “정조 21년 5월 1일 어찰,” 『정조대왕의 편지글』 (서울: 리움, 2004), 42-43.

“典簿 見此 … 見任須待 …”

21) 『정조실록(正祖實錄)』 50권, 정조 22년(1798) 7월 18일(경진) 1번째 기사.

“命洪就榮 攝奉奉朝賀祀綸音 … 故牧使洪守榮 以其家繼曾之宗 今也不淑 而其子穉幼 未堪主祀 … 典簿洪就榮 依朱文公家故事 入處奉朝賀本第 攝奉其祀 以待長孫之長成 求之禮義而允叶 參之情文而無闕 此意知敦寧知悉 知敦寧兄弟 雖緣序行之太高 不得如禮攝奉 自當略做朱廟塾在傍助之規 迭相佐之 而月朝承候 亦當勿替.”

22) 『순조실록(純祖實錄)』 1권, 순조 즉위년(1800) 7월 4일(갑신) 10번째 기사.

“大王大妃以諺書下教 洪龍漢 洪駿漢 洪樂任 洪樂倫 前直長鄭滂 洪就榮 洪緒榮 洪後榮及前副護軍趙觀鎮 前郡守趙用鎮 並差宗戚執事 …”

23) 『순조실록(純祖實錄)』 3권, 순조 1년(1801) 5월 25일(경자) 8번째 기사.

“大司諫吳鼎源 疏陳祖 任及尹行恁 鄭民始 徐命善之罪 請允臺啓 夫伸王章 … 臣謂前主簿洪就榮 爲先施以島配之典宜矣 …”

24) 혜경궁 홍씨 지음, 정병설 옮김, 『한중록』 (서울: 문학동네, 2016), 466-468.

25) 『순조실록(純祖實錄)』 25권, 순조 22년(1822) 8월 6일(정미) 2번째 기사.

“江原道暗行御史洪學淵書啓 論平海前郡守李有暉 春川府使韓耆裕 江陵府使李晉淵 淮陽縣監趙琮鎮 旌善前郡守任重白 狼川前縣監蔡弘韻 平海前郡守南錫中 麟蹄縣監李度憲 楊口縣監洪就榮不治狀 并令從輕重勸處 又論通川郡守徐秉淳有治績 施以陞敘之典 …”

3. 어찰에 나타난 『사부수권』의 편찬·교정 내용과 관련 기록

정조 22년(1798) 11월 30일 『사부수권』이 완성되었다. 정조는 삼례와 『사기』·『한서』, 송나라 5가(五家)의 책, 당나라 육지(陸贄)와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글을 가져다가 매일같이 윤독하고 마음에 드는 구절을 만나면 손수 권점(圈點)과 비점(批點)을 쳤다. 그리고는 규장각의 관원들에게 명하여 나누어 베끼게 하고 30권으로 편찬한 다음 『사부수권』이라 이름하였다.²⁶⁾

『사부수권』이라 한 것은 이 책의 작업과정과 관련되어 있음을 다음의 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근래에 여러 서적을 보면서 겨우 과정(課程)을 두어 밤마다 촛불이 다 타도록 글을 읽으며, 만년에 화려함을 거두고 간략한 데로 돌아가는 일조로 삼으니, 삼례, 『사기』, 『전한서』와 『후한서』, 주·장서와 『이정전서』, 『주자대전』, 『육내상전고』, 『당송팔가문초』와 같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중 마음에 맞는 곳에 이미 푸른색의 비점을 찍고 또 붉은색의 권점을 쳤는데, 비점은 이미 원본보다 간략하게 하였고, 권점 또한 비점보다 간략하게 하였으며, 책에다 그 권점 치는 것을 인하여 각기 하나의 계통을 이루게 하여 명명하기를 수권이라 하였으니, 『사기』와 『한서』를 양경(兩京)이라 하고, 주장(周張) 등 여러 현인을 오자(五子)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 대략인 것이다.”²⁷⁾라고 하였다.

정조는 그가 경·사·자·집에서 선정한 책들을 윤독하면서 과정을 두어 청비주권(靑批朱圈)을 하였는데 마음에 드는 좋은 구절은 먼저 청색먹으로 비점을 치고, 그중에서도 뛰어난 글에는 붉은 먹으로 권점을 쳐서 『사부수권』이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칠언 십운 배율을 써서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

萬幾餘暇講聲長 만기의 여가에 강독의 소리 길기도 해라
閱歷穰穰祕府藏 수많은 비부의 서적들을 다 열람하였네
月窟天根來往計 월굴과 천근은 천도 왕래의 헤아림이요
姬情孔思點勻方 희정과 공사는 도덕 수양의 방도로다
內家筆札紆文墨 왕실의 필찰엔 문묵이 가득 쌓였거니와
上世弦匏記后蒼 상세의 현포엔 후창의 시를 기억하노라
篇帙縱橫名手圈 중횡으로 책 펼치고 수권을 가하여라
權衡次第整書綱 균형 맞춰 차례대로 책의 강령 정돈했네
卜年八百周官制 팔백 년 국운 누린 건 주관의 제도이고
載籍三千戴禮場 책에 실린 삼천 예법은 예기의 마당이라

26) 『정조실록(正祖實錄)』 50권, 정조 22년(1798) 11월 30일(기축) 6번째 기사.

“《四部手圈》成 上取《三禮》《史記》《漢書》宋五子書 唐 陸贄 唐宋八大家文 課日輪讀 遇契意 手加圈批 命內閣諸臣分謄 彙成三十卷 命名《四部手圈》.”

27) 정조 찬, 『홍제전서(弘齋全書)』 권56 雜著 3, 『求諸圈跋於四閣相及文衡』.

“… 近看羣籍 劣有課程 每夜燭跋 爲晚來斂華反約之一助 如三禮 史記 前後漢書 周張二程全書 朱子大全 陸內相全稿 唐宋八家文鈔是耳 就其中會契於心者 既批靑又圈以朱 批既簡於原 圈又約於批 因書其圈 而各成一統 以命曰手圈 史漢 謂之兩京 周張諸賢 謂之五子 此其梗略也 …”

二子程朱傳道統	주자 장자 정자 주자는 도통을 전하였고 ²⁸⁾
兩京班馬盛文章	양경의 사마천 반고는 문장이 훌륭했네
午朝工課猶經史	아침 낮으론 경사를 일과로 삼았거니와
乙夜精神更縹緗	한밤중에도 정신은 또 서책에 있었다오
遂到鹿門張鼓吹	마침내는 녹문에 드니 음악이 펼쳐지고
悅看牛坵匠衣裳	어슴푸레 우점에 의상이 쉬임을 보겠네
從知直諫先推陸	본래부터 직간으론 육지를 추앙했나니
自是宗臣蓋有唐	이로부터 종신 육지가 당 나라를 덮었네
刪述祇要存聖軌	산삭엔 다만 성인의 법도를 두었거니와
源頭一畫跡羲皇	첫머리의 한 획은 복희씨를 본받았다고 ²⁹⁾ 라고 하였다.

규장각에는 정조가 초록한 대상 서적에 비점·권점을 찍어서 규장각 관리들이 선사하고 교열을 거쳐서 한 책씩 완성해 과정을 일자별로 자세하게 기록한 필사본 『사부수권과정일표(四部手圈課程日表)』(奎 9856) 1책이 남아 있다.³⁰⁾

『사부수권』은 정부의 『삼례수권(三禮手圈)』 6권, 사부의 『양경수권(兩京手圈)』 4권, 자부의 『오자수권(五子手圈)』 10권, 집부의 『팔가수권(八家手圈)』 8권 및 『육고수권(陸稿手圈)』 2권으로 각각 완성된 것을 합쳐 30권으로 편집되었다. 정조가 홍취영에게 보낸 어찰 및 관련 글 41통³¹⁾ 중, 정조 21년(1797) 10월 22일 『팔가』와 『사선』, 정조 22년(1798) 7월 4일 및 7월 6일의 『주서』, 정조 22년(1798) 10월 16일 『삼례』의 교정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 이들 기록들과 상관관계에 있는 기록들

28) 정조는 유교의 정통론에 따라 공자와 맹자의 도통을 확립한 사람들을 주자(周子; 周濂溪), 장자(張子; 張橫渠), 정자(程子; 程顥, 程頤), 주자(朱子; 朱熹)로 보았다.

29) 정조 찬, 『홍재전서(弘齋全書)』 권7 詩 3, 『求諸圈跋於四閣相及文衡』.
 “經而三禮 史而兩京 子而五子 集而八家 陸稿 既批而圈 既圈而鈔 遂成一帙 因書七言十韻排律以識之 其詳在義例 萬幾餘暇講聲長 閱歷穰穰祕府藏 月窟天根來往計 姬情孔思點勾方 內家筆札紆文墨 上世弦匏記后蒼 篇帙縱橫名手圈 權衡次第整書綱 卜年八百周官制 載籍三千戴禮場 二子程朱傳道統 兩京班馬盛文章 午朝工課猶經史 乙夜精神更縹緗 遂到鹿門張鼓吹 悅看牛坵匠衣裳 從知直諫先推陸 自是宗臣蓋有唐 刪述祇要存聖軌 源頭一畫跡羲皇 …”

30) 鄭在薰, “『四部手圈』 解題,” 『四部手圈』 上 (서울: 규장각, 2002), 11.

31) 임재완 편역, 하영휘 교열, 『정조대왕의 편지글』 (서울: 리움, 2004) 12-109. 정조 16년(1792) 2월 24일 금천현감 시 1통(no. 1), 강서현령 시 정조 16년(1792) 6월 16일(no. 2), 정조 17년(1793) 12월 20일(no. 3), 정조 18년(1794) 12월 17일(no. 4), 정조 19년(1795) 11월 11일(no. 7), 12월 10일(no. 8), 정조 20년(1796) 2월 1일(no. 9), 11월 16일(no. 12), 11월 23일(no. 13), 12월 12일(no. 14), 정조 21년(1797) 5월 1일(no. 15), 10월 22일(no. 16), 12월 12일(no. 19), 정조 22년(1798) 4월 22일(no. 20), 10월 16일(no. 23), 11월 11일(no. 24), 12월 10일(no. 25), 12월 13일(no. 26), 정조 23년(1799) 5월 2일(no. 30), 5월 21일(no. 31), 7월 7일(no. 32), 7월 10일(no. 33), 8월 20일(no. 34), 8월 21일(no. 35), 12월 6일(no. 36), 정조 24년(1800) 4월 29일(no. 38), 5월 1일(no. 39)의 편지 26통, 전부벼슬 시 정조 21년(1797) 10월 23일(no. 17), 11월 3일(no. 18), 정조 22년(1798) 12월 13일(no. 26), 정조 23년(1799) 4월 9일(no. 29), 12월 11일(no. 37)의 편지 5통, 홍취영의 벼슬 표시가 없이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로는 정조 22년(1798) 7월 4일(no. 21), 7월 6일(no. 22), 12월 16일(no. 27)의 편지 3통, 정조 18년(1794) 혜경궁 홍씨 환갑에 홍취영이 지은 시 1통(no. 5), 홍재주(洪載周, 1779~1863, 홍위영의 아들)가 홍취영의 시를 그대로 베낀 것 1통(no. 6), 순조 6년(1806) 7월 15일의 홍취영 발문(no. 40)이 1통, 연도가 없는 것으로는 정조가 창경궁 영춘헌에서 혜경궁 홍씨를 위해 지은 시 1통(no. 11), 홍취영이 화답한 글(no. 10) 1통, 서책과 관련된 7조의 글(no. 28) 1통의 3통으로 총 41통이다.

은 『홍재전서』, 『군서표기』,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내각일력』, 현존본 기록 등이다
이 자료들을 종합하여 『삼례수권』, 『양경수권』, 『오자수권』, 『팔가수권』 및 『육고수권』으로 나누어 편찬과 교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삼례수권』

정조 22년(1798) 10월 16일 홍취영에게 보낸 어찰에는 『삼례』의 발췌본을 내일(17일) 보내면서 언제 돌려줄 것인지를 물어보아 교정을 부탁한 내용이 있다.³²⁾

또한 『내각일력』 정조 22년(1798) 10월 24일조에 『삼례수권』의 서역(書役) 및 교정(較正)을 맡은 사람은 초계문신 홍수만, 이희갑, 송지렴, 이면승, 김희락, 김이재, 김이영, 홍석주이다.³³⁾ 그중 『주례수권』은 정조 22년(1798) 10월 26일에 교준 및 서역은 초계문신 정동관, 김근순, 홍석주, 김계은이고,³⁴⁾ 10월 27일의 교준은 초계문신 정동관, 김이영, 홍석주, 김계은이며,³⁵⁾ 10월 28일의 서역은 초계문신 홍수만, 이희갑, 송지렴, 김이재, 이면승, 김희락이다.³⁶⁾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정조는 정조 22년(1798) 6월부터 10월 사이에 『삼례수권』을 비권하고, 10월 17일에 홍취영에게 발췌본 전체의 교정을 부탁하여 10월 24일 전에는 돌려받은 후,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초계문신들에게 교준 및 서역을 집중적으로 시킨 것으로 보인다.

『삼례수권』은 『의례』, 『주례』, 『예기』 중에서 각 2권씩 비권하여 6권으로 완성되었다.³⁷⁾ 『의례』의 비권은 사관례(士冠禮), 사혼례(士婚禮), 사상견례(士相見禮), 향음주례(鄉飲酒禮), 향사례(鄉射禮), 연례(燕禮), 대사례(大射禮), 빙례(聘禮), 공식대부례(公食大夫禮), 근례(覲禮), 특생饋食례(特牲饋食禮), 유사철(有司徹) 등으로 『의례』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였다. 『주례』의 비권은 천관총재(天官冢宰), 지관사도(地官司徒), 춘관종백(春官宗伯), 하관사마(夏官司馬), 추관사구(秋官司寇), 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 등으로 『주례』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였다. 『예기』의 비권은 총 49편 중 6편을 빼고 모두 초록하였다.³⁸⁾

32) 정조, “정조 22년 10월 16일 어찰,” 『정조대왕의 편지글』 (서울: 리움, 2004), 60-61.

“江西 見此 … 三禮鈔本 自明日出送 何間當還出也 如無所幹於目下者 明日出去 如何 ….”

33) 『내각일력(內閣日曆)』 정조 22년 10월 24일조.

“三禮手圈書役及較正 抄啓文臣洪秀晚李義甲宋知謙李勉昇金熙洛金履載金履永洪爽周別省記入宿.”

34) 『내각일력(內閣日曆)』 정조 22년(1798) 10월 26일조.

“周禮手圈校準及書役抄 啓文臣鄭東觀金近淳洪爽周金啓溫別省記入宿.”

35) 『내각일력(內閣日曆)』 정조 22년(1798) 10월 27일조.

“周禮手圈校準抄啓文臣鄭東觀金履永洪爽周金啓溫別省記入宿.”

36) 『내각일력(內閣日曆)』 정조 22년(1798) 10월 28일조.

“周禮手圈書役抄啓文臣洪秀晚李義甲宋知謙金履載李勉昇金熙洛別省記入宿.”

37)奎章閣 編, 『군서표기(群書標記)』 御定書 3 (서울: 學文閣, 1970), 147-153.

38) 『예기』에서 비권을 가한 부분은 곡례(曲禮), 단궁(檀弓), 왕제(王制), 월령(月令), 증자문(曾子問), 문왕제자(文王世子), 예운(禮運), 예기(禮器), 교특생(郊特牲), 내칙(內則), 왕조(王藻), 명당위(明堂位), 상복소기(喪服小記),

정조 22년(1798) 6월부터 10월 사이에 『삼례수권』을 비권하고, 교정한 여러 신하에게 그 뜻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주자는 『의례』를 본경으로 삼고 『대대례기』를 전으로 삼았으니, 노 나라에 있던 예를 아울러 후세에 바꾸지 못할 법칙이 된 것은 바로 『의례』이다. 그러므로 드디어 비점과 권점을 가하기를 『주례』와 『대례』까지 하고 명명하기를 『삼례』라고 하였다. [중략] 대저 『주례』와 『의례』는 바로 동일한 과조(科條)의 서책이니, 제사(祭祀)·조근(朝覲)·연향(燕饗)·군려(軍旅)에 관한 일과, 관혼(冠昏)·饋식(饋食)·사음(射飲)·등강(登降)에 대한 절차, 단묘(壇廟)·궁실(宮室)·여위(輿衛)·기복(器服)의 품류는 문자(文字)를 가지고 본보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간혹 의장(儀章)에 빠진 것이 있으니, 이것이 비점과 권점을 치는 데 있어서 다른 서책과 규례가 달라 서로 따를 수 없는 까닭이다. [중략] 본경(本經)에 의심스러운 것은 주자의 『경전통해』에서 찾아보고, 『경전통해』에서 의심스러운 것은 황직경(黃直卿)의 『속통해』에서 찾아보며, 옆으로는 양복(楊復)의 그림에 이르고 아래로는 명나라 오계공(敖繼公)의 『집설』에 이르러 찾아보지만, 그래도 걸리고 구애되어 통하지 않는 바가 있으니, 그것은 대체로 희녕(熙寧: 송(宋) 신종(神宗)의 연호) 이후로는 『의례』에 대하여 학관을 세우지 아니하여 마침내 스승을 계승하여 교수(教授)하는 유익함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지금 내가 수권(手圈)하는 것은 대체로 앞장서서 밝혀 조정이나 초야에서 음양(損讓)하는 기풍에 보탬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³⁹⁾라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조는 『삼례수권』에 있어서 주자의 『의례』를 본경으로 삼고 『대대례기』를 전으로 삼아서 작업을 하였고, 『삼례수권』을 읽을 때 의심이 나는 부분은 주자의 『경전통해』, 황직경의 『속통해』, 오계공의 『집설』을 참고하도록 권유하였다. 이 책의 발문은 정조의 부탁으로 규장각 제학인 몽오(夢梧) 김중수(金鍾秀, 1728~1799)가 작성하였다.

3.2 『양경수권』

정조 21년(1797) 10월 22일 홍취영에게 보낸 어찰에는 『사선』의 교정 기록이 나온다.

“정조가 『팔가』의 문장에 비점하고 『사선』을 읽으면서 금년에는 한가한 시간에 공부를 하였다. 직접 여러 서적의 구두를 정하였는데 한꺼번에 불러서 받아쓰게 하고 차차로 옮겨서 베끼게 한다면 만드

대전(大傳), 소의(少儀), 학기(學記), 악기(樂記), 잡기(雜記), 제법(祭法), 제의(祭義), 제통(祭統), 경해(經解), 애공문(哀公問), 중니연거(仲尼燕居), 공자한거(孔子閒居), 방기(坊記), 표기(表記), 치의(緇衣), 문상(問喪), 삼년문(三年問), 심의(深衣), 투호(投壺), 유행(儒行), 관의(冠義), 혼의(昏義), 향음주의(鄉飲酒義), 사의(射義), 연의(燕義), 빙의(聘義) 등이다. 빠진 6편은 상대기(喪大記), 분상(奔喪), 복문(服問), 간전(間傳), 대학(大學), 상복(喪服)이다.

39) 정조 찬, 『홍재전서(弘齋全書)』 권56 雜著 3, 『示手圈校正諸學士』.
“... 然而朱子以儀禮爲本經 戴禮爲傳 則並與在魯之禮 爲後世不祧之法者 惟儀禮是已 故遂加批圈 以至周禮戴禮而命之曰三禮 ... 大抵周禮儀禮 卽一科條書也 祭祀朝覲燕饗軍旅之事 冠昏饋食射飲登降之節 壇廟宮室輿衛器服之品 有不可律之以文字 而或關於儀章 此所以批圈之與他書殊例而不相沿者 ... 疑於本經 則求之朱子之經傳通解 疑於經傳通解 則求之黃直卿之續通解 旁以及乎楊復之圖 下以逮夫敖繼公之集說 而猶有所罣礙不通者 蓋自熙寧以後 儀禮不立學官 而遂無師承教授之益而然也 今予手圈 蓋欲倡而明之 以有神於朝野損讓之風也 ...”

시 많은 잘못이 있을 것이다. 여기 『팔가』와 『사선』을 보내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피차간에 잘못된 곳이 있을 것 같으니 잘못된 부분의 끝머리에 침을 붙여둬도 좋겠다. 그리고 과정(過庭)할 때 본다면 한가한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된다. 일단 이만 줄인다. 한 건은 우선 보내고 한 건은 두었다가 옮겨 배긴 후에 되돌려 보낼 작정이다. 너희 집에 이런 책들을 모두 가지고 있느냐?⁴⁰⁾ 라고 하였다.

정조는 『양경수권』 4권을 정조 22년(1798) 9월 25일~29일, 10월 2일~26일까지 비권하였다. 위 어찰의 내용을 참조하면, 정조가 홍취영에게 직접 수비(手批)한 『사선』을 살펴보고 잘못된 곳에는 침을 붙여두도록 하였고, 부친 흥낙임을 빌 때 본다면 한가한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 하였다. 이는 홍취영에게 교정을 일부 맡기고, 부친 흥낙임을 빌 때 다시 점검을 받도록 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조 21년(1797) 10월 22일에 『사선』의 교정을 시켰으니 『과정일표(課程日表)』에 제시된 정조 22년(1798) 9월 25일~29일, 10월 2일~26일의 기간보다 앞서 홍취영과 그의 부친 흥낙임에게 수비 작업의 일차 교정을 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양경수권』은 사마천의 『사기』 2권, 반고의 『한서』 1권, 범엽의 『후한서』 1권을 비권하여 4권으로 완성되었다.⁴¹⁾ 『사기』는 본기 권1~12까지는 모두 선별하고, 권13~권22까지의 연표는 생략하였으며, 권34~38까지는 연소공(燕召公), 관채(管蔡), 진기(陳杞), 위강숙(衛康叔), 송미자(宋微子)와 권42의 정세가(鄭世家), 권45의 한세가(韓世家), 권50의 초원왕세가(楚元王世家)만 생략하고 나머지 세가를 모두 비권의 대상으로 하였다. 권61~130까지의 열전은 부분적으로 비권의 대상으로 하였다. 『사기』의 선집 중 열전의 분량이 많은 것은 정조 20년(1796) 겨울에 정조의 명령으로 정약용(丁若鏞)·이만수(李晩秀)·이재학(李在學)·이익진(李翼晉)·박제가(朴齊家) 등이 교정하고, 채제공(蔡濟恭)이 서명을 정하여⁴²⁾ 12월 15일에 주자소에서 정유자로 찍어 올린 『어정사기영선』 6권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책 역시 『사기』 중 「본기」 중에서 1편, 「세가」 중에서 2편, 「열전」 중에서 22편을 선정하여⁴³⁾ 열전의 분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서』는 제기(帝紀)에서 권8의 선제기(宣帝紀)를, 지에서는 권21~권30까지 율력(律曆), 예악(禮樂), 형법(刑法), 식화(食貨), 지리(地理), 구혁(溝洫), 예문지(藝文志)에서 택하였고, 열전은 권51~권54까지 가산(賈山), 추양(鄒陽), 이릉(李陵), 소무(蘇武)를, 권59~권100까지 장안세(長安世)에서 서전(敘傳)까지 택하였다. 『후한서』는 제후기는 권1~권10까지 광무제(光武帝)에서 양황후(梁皇后)까지 택하였고, 지는 제1~제30까지 오행지(五行志)를 제외하고, 율력, 예의, 제사, 천문,

40) 정조, “정조 21년 10월 22일 어찰,” 『정조대왕의 편지글』 (서울: 리움, 2004), 44-45.

“江西 見此 … 此中批八家讀史選 爲今年三餘之工 而手定諸書句讀 一時呼筆 次次轉騰 必多訛類(되) 茲送二函 細加考準 彼此如有舛誤處 付籤紙頭爲可 而經覽於過庭之時 亦爲閒中消遣之一助耳 姑此 一件先爲較送 一件留置移騰後還送 而君家此諸書皆有之耶 丁巳(정조 21, 1797) 十月二十二日 ….”

41) 奎章閣 編, 『군서표기(群書標記)』 御定書 3 (서울: 學文閣, 1970), 153-156.

42) 丁若鏞 著,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16권 「自撰墓誌銘」.

“… 至冬召鏞入奎瀛府 與李晩秀 李在學 李翼晉 朴齊家等校史記英選 數賜對 議定書名 ….”

43) 奎章閣 編, 『군서표기(群書標記)』 御定書 3 (서울: 學文閣, 1970), 123-125.

군국, 백관, 여복지(輿服志)에서 고루 택하였다. 열전은 권13의 이효(頤顛), 공손술전(公孫述傳)에서, 권89의 남흉노전(南匈奴傳)에서 택하여 열전과 지의 순서를 바꾸어 배열하였다.⁴⁴⁾

정조는 『양경수권』 4권을 정조 22년(1798) 9월 25일~29일, 10월 2일~26일까지 비권하고, 교정한 여러 신하에게 그 뜻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내가 태사공(太史公: 司馬遷임)의 글을 읽고 뽑으면서야 비로소 기전체(紀傳體)가 좌씨(左氏: 左丘明임)의 『국어』를 모방하였음을 알았다. [중략] 마침내 수권을 하고 인해서 『전한서』와 『후한서』에 미쳤는데, 그중 증강(曾江)의 『통사』에 기재된 것을 모두 생략한 것은 바로 주무숙(周茂叔: 周敦頤의 字)이 모란(牡丹)을 취하지 않은 뜻에서이다. 『전한서』와 『후한서』의 의례(義例)의 경우는 버리고 취하는 기준이 저절로 있으니, 서경(西京: 전한임)의 경우는 오봉(五鳳: 漢 宣帝의 연호) 이후는 생략하였고, 동경(東京: 후한임)의 경우는 건안(建安: 후한 獻帝의 연호) 이후는 생략하였으니, 대체로 회(鄒) 나라 이하는 조사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교정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서는 안 될 것이다.”⁴⁵⁾라고 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참조하면, 정조가 『양경수권』의 편찬에 있어서 『사기』, 『한서』, 『후한서』의 3책을 택한 이유는 『사기』는 기전체의 대표이고, 『한서』와 『후한서』는 통사이기 때문이었다. 다만 두 책은 취사선택을 하여 서경(장안)은 오봉 이후를 생략하고, 동경(낙양)은 건안 이후를 생략하였다. 이 책의 발문은 정조의 부탁으로 원임규장각제학이었던 체제공에 의해 작성되었다.

3.3 『오자수권』

정조 22년(1798) 7월 4일 홍취영에게 보낸 어찰에는 『주서』의 교정 기록이 있다.

“이번에 보내는 주서(朱書)의 권집 중에 산삭할 곳이 있는데 눈이 침침하여 볼 여가가 없었다.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다만 앞과 뒷부분만 산삭하였지 글자 하나하나 일일이 교정을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곳은 각별히 살펴서 똑같은 예로 바로잡도록 하라. 그리고 주석 중에도 산삭함에 따라 다른 곳에 옮겨 적어 놓은 곳이 있는데, 역시 각별히 꼼꼼히 살피고 비교하여 바로 잡아서 보내도록 하라.”⁴⁶⁾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조 22년(1798) 7월 6일 어찰에도 교정기록이 있다.

44) 鄭在薰, “『四部手圈』 解題,” 『四部手圈』 上 (서울: 규장각, 2002), 17-18.

45) 정조 찬, 『홍재전서(弘齋全書)』 권56 雜著 3, 『示手圈校正諸學士』.

“予讀太史公而選之 始知紀傳之體 倣於左氏之國語也 … 遂爲手圈而仍及二漢書 其載之曾江之通史者 并略之者 卽周茂叔不取牡丹之意也 若二漢書義例 自有取舍 西京則略於五鳳以後 東京則略於建安以後 蓋鄒以下 讖之意也 參校諸人 不可不知此 …”

46) 정조, “정조 22년 7월 4일 어찰,” 『정조대왕의 편지글』 (서울: 리움, 2004), 54-55.

“就也 見此 … 此去朱書圈刪處 眼昏且乏暇隙 間多 只刪首尾 不能逐字塗乙 此等處 各別照察 一例釐正 而如注錄之隨刪圈 移錄他所者 亦須各別詳考 較正入送也 … 戊午七月初四日.”

“이번에 보낸 책에서 책의 권점이 빠진 곳과 주석 부분에서 아직 비교하지 못한 곳과, 『대전』의 윗부분에 산삭하라는 첨지가 붙지 않은 곳 모두를 일일이 살펴서 보냄이 좋겠다.”⁴⁷⁾고 하였다.

또한 『내각일력』 정조 22년(1798) 10월 16일조에 의하면, 『주문수권』의 교준은 초계문신 홍수만, 김희락이고,⁴⁸⁾ 10월 17일의 교준은 초계문신 김이재, 이희갑이며,⁴⁹⁾ 10월 18일의 교준은 초계문신 홍수만, 송지렴, 김희락이고,⁵⁰⁾ 10월 19일의 교정은 초계문신 홍수만, 이희갑, 송지렴, 김이재, 이면승, 김희락이며,⁵¹⁾ 10월 24일 사자관 25인이 『오자수권』의 서역을 마쳤다.⁵²⁾

위의 두 인용문과 『내각일력』의 내용을 종합하면, 정조가 22년(1798) 4월부터 10월까지 수권한 『오자수권』은 그해 7월 4일과 7월 6일에는 홍취영에게 『주서』의 권점 중에 산삭할 것에 대하여 교정을 부탁하고, 주석 중에도 산삭함에 따라 다른 곳에 옮겨놓은 것을 꼼꼼히 살피고 비교하여 보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대전』은 책의 권점이 빠진 곳과 주석 부분에서 아직 비교하지 못한 곳과 『대전』의 윗부분에 산삭하라는 첨지가 붙지 않은 곳 모두를 일일이 살펴서 보내도록 지시하였다.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초계문신의 교준 및 교정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10월 24일에 사자관 25인이 『오자수권』의 서역을 마쳤음을 알 수 있다.

『오자수권』은 주자(周子, 周濂溪) 1권, 백정자(伯程子, 程顥) 1권, 숙정자(叔程子, 程頤) 1권, 장자(張子, 張橫渠) 1권, 주자(朱子, 朱熹) 6권을 비권하여 10권으로 완성되었다⁵³⁾

정조는 『오자수권』 10권을 22년(1798) 4월부터 10월까지 비권하고, 교정한 여러 신하에게 그 뜻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주자가 출현하자, 많은 학설들이 잠잠해졌다. 그리하여 천리를 밝히고 인심을 바로잡아 게시하기를 일성(日星)처럼 빛나게 하고 신기를 화악처럼 우뚝하게 하며, 전하여 모범을 보이고 천하만세토록 장도(章圖)와 법정(法程)이 되게 하였으니, 예전의 성인과 후세의 성인이 그 도는 동일한 것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주자의 글을 외고 익혀서 이제는 머리가 허영게 되었는데, 마치 대강 스스로 터득한 것이 있는 듯하다. 다만 그 편질이 극도로 호한하여 천상의 음악을 동정호에서 펼치는 것과 같아, 그 춤추는 모습을 쉽게 추구할 수 없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같은 부류를 기록하고 편집하는 것을 마침내 사업으로 삼아 강령을 제시하고 긴요함을 헤아려 『자양회영』을 만들고, 부문별로 나누

47) 정조, “정조 22년 7월 4일 어찰,” 『정조대왕의 편지글』 (서울: 리움, 2004), 58-59.

“就也 見此 … 此去冊圖之或遺者 注之未較處 並與大空地頭刪籤之不付 一一照檢入送爲可 ….”

48) 『내각일력(內閣日曆)』 정조 22년 10월 16일조.

“朱文手圈較準 抄啓文臣洪秀晚金熙洛別省記入宿.”

49) 『내각일력(內閣日曆)』 정조 22년 10월 17일조.

“朱文手圈較準 抄啓文臣金履載李羲甲別省記入宿.”

50) 『내각일력(內閣日曆)』 정조 22년 10월 18일조.

“朱文手圈校準 抄啓文臣洪秀晚宋知濂金熙洛別省記入宿.”

51) 『내각일력(內閣日曆)』 정조 22년 10월 19일조.

“朱文手圈校正 抄啓文臣洪秀晚李羲甲宋知濂金履載李勉昇金熙洛別省記入宿.”

52) 『내각일력(內閣日曆)』 정조 22년 10월 24일조.

“寫字官二十五人 自此日 書役五子手圈.”

53) 奎章閣 編, 『군서표기(群書標記)』 御定書 3 (서울: 學文閣, 1970), 156-160.

고 조목을 열거하여 『자양선통』을 만들었으며, 왕복(往復)한 편지와 소(疏)를 초록하고 채택하여 『주자서백선』을 만들었고, 『주자대전』과 『주자어류』의 대략을 합하여 『주자서절약』을 만들었다. 그리고 부지런히 유서(遺書)를 구하여 별도로 『회선』을 편찬하였으며, 여러 학설을 널리 모아 보주(補註)를 찬술하도록 명하고, 장차 『대전』·『어류』·유서 및 『시경집전』·『주역본의』·『사서장구집주』·『혹문』·『역학계몽』·『가례』·『시과고오』·『한문참동계고이』·『초사주』·『통서해』·『태극도해』·『서명해의』 등 여러 서책을 아울러 수집하여 대일통문자(大一統文字)를 만들어 넓으면서도 간략한 데 이르게 하고, 간략하면서도 크게 이룩하는 데 이르게 하는 의(義)를 삼으려고 하여 먼저 『대전』에 나아가 수권(手圈)하였다. 인해서 염계(濂溪) 주 부자(周夫子: 周敦頤를 가리킴)가 아주 뛰어난 지혜와 자질을 타고나 순수하고 강명한 덕을 지키며, 끊어진 학통을 전무한 데서 일으켜 백성들에게 큰 근본을 세운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정 선생(二程先生: 程顥와 程頤를 가리킴)과 횡거(橫渠) 장자(張子: 張載를 가리킴)가 같은 시기에 함께 배우면서 하남(河南)과 낙양(洛陽)을 수사(洙泗)로 삼고, 건도(乾道: 宋 孝宗의 연호)와 순희(淳熙: 宋 효종의 연호)를 추로(鄒魯)로 여기며, 천지의 운수(運數)를 체득하고, 성명(性命)의 근원을 남김없이 말하였으니, 바로 황문숙(黃文肅 宋) 황간(黃幹)의 시호(諡號)이 이른바 주렴계·장횡거·이정의 글은 공자와 맹자가 전한 도통(道統)을 계승하였다는 것이다. 그 격언과 지론은 『근사록』, 『어록』, 『유어』, 『수언』 등의 서책에 많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문집(文集)에만 권점을 더하여 완성한 뒤에 『주자수권』과 함께 편집하여 『오자수권』이라고 명명하였다.”⁵⁴⁾라고 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참조하면, 정조는 주자의 저작들을 먼저 선집하여 『자양회영』, 『자양선통』, 『주자서백선』, 『주자서절약』, 『회선』 등을 편찬하였고, 장차 여러 책을 수집하여 공자·맹자·정자·주자로 이어지는 대일통문자를 만들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 대한 작업이 『대전』부터 수권하여 주렴계, 정호와 정이, 장횡거, 주희의 글을 모아 『오자수권』으로 편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뜻을 잘 이해하고 있는 원임규장각직제학 김희(金憲)에게 발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3.4 『팔가수권』 및 『육고수권』

정조 21년(1797) 10월 22일 홍취영에게 보낸 어찰에는 『팔가』의 교정 기록이 나온다.

“정조가 『팔가』의 문장에 비집하고 『사신』을 읽으면서 금년에는 한가한 시간에 공부를 하였다. 직접 여러 서적의 구두를 정하였는데 한꺼번에 불러서 받아쓰게 하고 차차로 옮겨서 베끼게 한다면 반드

54) 정조 찬, 『홍재전서(弘齋全書)』 권56 雜著 3, 『示手圈校正諸學士』.

“… 何幸朱子出而衆說伏 明天理正人心 揭之爲日星 載之爲華嶽 垂而範之 爲天下萬世之章圖法程 前聖後聖 其揆一也 予自少誦習朱子 于今白紛 如粗有自得之者 但其篇帙極浩瀚 有如廣樂張於洞庭 未易究其俯仰綴兆之容也 彙輯編摩 遂以爲業 提領絜要 而爲紫陽會英 分門列目 而爲紫陽選統 鈔往復書疏而裁擇之 爲朱子書百選 合大全語類而梗槩之 爲朱子書節約 勤求遺書 而另編會選 廣集諸說 而命撰補註 行將并收大全語類遺書及詩集傳 易本義 四書章句集註 或問 易學啓蒙 家禮 著卦考誤 韓文參同契考異 楚辭註 通書解 太極圖解 西銘解 義等諸書 爲大一統文字 以爲博而至於約 約而至於大成之義 而先就大全 而爲手圈 因念濂溪周夫子 挺上知之姿 秉純剛之德 倡絕學於寥寥 立大本於元元 而二程先生與夫橫渠張子 並時同學 河洛爲洙泗 乾淳如鄒魯 體天地之運 盡性命之原 卽黃文肅所謂周張二程之書 繼孔孟道統之傳者也 其格言至論 多載於近思錄語錄遺語粹言等書 故祇加圈於文集 既告完 與朱子手圈而共編之 名爲五子手圈 …”

시 많은 잘못이 있을 것이다. 여기 『팔가』와 『사신』을 보내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피차간에 잘못된 곳이 있을 것 같으니 잘못된 부분의 끝머리에 침을 붙여둬도 좋겠다. 그리고 과정(過庭)할 때 본다면 한가한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된다. 일단 이만 줄인다. 한 건은 우선 보내고 한 건은 두었다가 옮겨 배긴 후에 되돌려 보낼 작정이다. 너희 집에 이런 책들을 모두 가지고 있느냐?⁵⁵⁾ 라고 하였다.

또한 『내각일력』 정조 21년(1797) 12월 22일조에 의하면, 『팔가수권』의 교준은 초계문신 이면공, 정만석, 김이교가 하였고,⁵⁶⁾ 정조 22년(1798) 2월 23일에는 서역사자관 홍경운, 박희성, 이원, 안사현, 박이신, 홍태운에게 물목을 하사하였다.⁵⁷⁾

위의 어찰과 『내각일력』의 내용을 종합하면, 정조는 『팔가수권』 8권을 21년(1797) 10월부터 12월 까지 비권하였다. 10월 22일에 홍취영에게 자신이 집집 수비한 『팔가』를 살펴보고 잘못된 곳에는 침을 붙여두도록 하고, 부친 흥낙임을 뵈 때 본다면 한가한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 하였다. 정조는 『팔가』를 비권하는 중에 홍취영에게 보내서 교정을 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2월 22일에는 초계문신이 교준하였고, 이듬해인 2월 23일 서역한 사자관들에게 물목을 하사하였다.

『팔가수권』은 정조가 당송팔대가의 문장 중에서 문장의 규범이 될 만한 것 100선을 뽑아 만들었던 『어정팔자백선』⁵⁸⁾에서 화실(華實)만을 선정하고 손수 비권하여 8권으로 완성하였고,⁵⁹⁾ 『육고수권』은 정조가 당육선공주의(唐陸宣公奏議)를 간추려 엮은 『어정육주약선』⁶⁰⁾의 전체 원고에 비권하여 2권으로 편집하였다.⁶¹⁾

그중 정조는 『팔가수권』 8권을 정조 21년(1797) 10월부터 12월까지 비권하고, 교정한 여러 신하에게 그 뜻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55) 정조, “정조 21년 10월 22일 어찰,” 『정조대왕의 편지글』 (서울: 리움, 2004), 44-45.
“江西 見此 … 此中批八家讀史選 爲今年三餘之工 而手定諸書句讀 一時呼筆 次次轉騰 必多訛類 茲送二函 細加考準 彼此如有舛誤處 付籤紙頭爲可 而經覽於過庭之時 亦爲閒中消遣之一助耳 姑此 一件先爲較送 一件 留置移騰後還送 而君家此諸書皆有之耶 丁巳(정조 21, 1797) 十月二十二日 …”
- 56) 『내각일력(內閣日曆)』 정조 21년 12월 22일조.
“八家手圈校準 抄啓文臣李勉兢鄭晚錫金履喬別省記入宿.”
- 57) 『내각일력(內閣日曆)』 정조 22년 2월 23일조.
“八家手圈 書役寫字官 洪慶運 內下紬一疋 木一疋 胡椒五升 朴希聖李垣安思賢 各苧一疋 胡椒五升 朴履信洪泰運 各木一疋.”
- 58) 『어정팔자백선』 6권은 정조가 즉위 5년(1781)에 당송팔대가의 문장 중에 한유(韓愈, 호: 昌黎) 30편, 유종원(柳宗元, 호: 柳柳州) 15편, 구양수(歐陽脩, 호: 六一居士) 15편, 소순(蘇洵, 호: 老泉) 5편, 소식(蘇軾, 호: 東坡) 20편, 소철(蘇轍, 호: 穎濱) 5편, 왕안석(王安石, 호: 半山) 7편, 증공(曾鞏, 호: 南豐) 3편, 도합 100편을 선정하였으며 내각에 명하여 정유자로 인반하게 하고, 번각하여 장관하게 하였다.
- 59) 奎章閣 編, 『군서표기(群書標記)』 御定書 3 (서울: 學文閣, 1970), 161-163.
- 60) 『어정육주약선』 2권은 정조가 18년(1794)에 당 육지(陸贄)의 주의(奏議) 중 정수가 될 만한 것 29편을 선정하고 이황의 『주서절요(朱書節要)』 의례(義例)를 모방하여 자구를 간략히 하여 송독(誦讀)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정조 21년(1797)에 각신 서유구(徐有榘) 등이 교정하여 2권으로 편집하였고 주자소에서 정유자로 인출하였으며 호남영에 하송하여 번각장판(飜刻藏板)케 하였다.
- 61) 奎章閣 編, 『군서표기(群書標記)』 御定書 3 (서울: 學文閣, 1970), 160-161.

“당송팔대가는 문장의 연수(淵藪)와 부고(府庫)이다. [중략] 그옥이 옛날 사람에게 비유해 보건대, 창려(昌黎: 翰愈를 가리킴)는 관자(管子: 管仲을 가리킴)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아 먼저 그 창름(倉廩)을 채우고 다음에 갑병(甲兵)을 훈련시켜 이미 수효가 많아지고 힘이 강해지면 취하기를 급하지 않았으며, 유주(柳州: 柳宗元을 가리킴)와 임천(臨川: 王安石을 가리킴)은 한 나라 장탕이 옥사를 다스리는 것과 같아, 호랑이 같은 옥리가 의관을 갖추고 각박하게 조사하는 것으로 다스리는 기본을 삼고 종합하여 밝히는 것으로 명분을 삼았고, 여릉(廬陵: 歐陽脩를 가리킴)은 진(晉) 나라 양숙자(羊叔子: 羊祜를 가리킴)가 형주에 주둔하여 있을 때와 같아, 가벼운 갖옷에다 허리띠를 느슨하게 두르고 산에 오르고 물가를 유람하였는데, 그가 남겨 놓은 기풍과 공적은 성하게 강한(江漢) 사이에 영향을 입혔다. 소씨의 삼부자에 노소(老蘇: 蘇洵을 가리킴)는 장생(莊生: 莊周를 가리킴)의 설검(說劍: 『장자』의 편명)과 같아 번뜩이는 빛과 괴이함이 갖가지로 출현하고, 장소(長蘇: 蘇軾을 가리킴)는 한신이 병기를 번쩍이며 위엄을 보이면서 왼쪽에는 강후(絳侯: 周勃을 가리킴)와 관영을, 오른쪽에는 변쾌와 팽월을 두고 호령을 하는 것과 같이 변화가 끝이 없으며, 소소(少蘇: 蘇轍을 가리킴)는 한 나라 환영이 황제에게 받은 거마와 인수를 진열해 놓고 많은 자제들에게 자랑하는 것과 같았고, 남풍(南豐: 曾鞏을 가리킴)은 동한의 탁무가 깨끗한 조정과 혼탁한 조정 사이에서 지조를 지킨 것과 같았다. [중략] 팔대가의 글 가운데서 이미 100편을 뽑았는데, 문자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신비스러운 광채와 정수를 추려서 수집하는 데에는 수권하는 것보다 더 요긴한 것이 없다. [중략] 세상에서 문장을 배우려는 자가 여기에서 그 꽃과 열매를 씹어 보고 음미하며 점차 경거나 소호처럼 아름다운 문장을 지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바이다.”⁶²⁾라고 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참조하면, 정조는 당송팔대가는 문장의 연수이자 부고라 칭하고, 한유, 유종원, 왕안석, 구양수, 소순, 소식, 소철, 증공 8대가의 문장 중에서 신비스런 광채와 정수를 추려서 100편을 뽑아 수권하여 『팔가수권』 8권을 완성하였다. 이 책의 발문은 정조의 뜻을 받들어 홍문관대제학과 예문관대제학을 지낸 홍양호(洪良浩)가 작성하였다.

이어서 정조는 『육고수권』 2권을 22년(1798)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비권하고, 교정한 여러 신하에게 그 뜻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주의는 반드시 서경(西京) 때의 것을 추앙하는데, 유향은 성력에 치우치고, 양웅은 종횡에 가까우며, 공광은 완곡하기만 하고, 곡영은 예쁘게만 하며, 서약·엄안·매승·오구수왕·공손홍·주보언의 무리들은 노둔하면서 허탄하고 한만하면서 지리하였다. 그러다가 당 나라 때에 육선공(陸宣公: 陸贄) 한 사람을 얻게 되었는데, 상소문의 표본이 될 만하다. 군막 안에서 작전을 세우고 군진에 드나들면서 이익이 되고 병폐가 되는 근원을 지적하고, 득실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는데, 그 내용이 부지런하고 간절하며 명백하고 솔직하여 비록 거친 장교나 사나운 병졸이라도 그의 글을 외고 전하며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더구나 충성스러운 뜻을 지닌 인사이겠는가. [중략] 그의 주장을 몹시 아껴서 반복하여 돌아가면서 열람하고 간략하게 질록하여 『육주약선』을 만들었으며, 인해서 전체의 초고에다 비권하여 수권하였다.”⁶³⁾라고 하였다.

62) 정조 찬, 『홍재전서(弘齋全書)』 권56 雜著 3, 『示手圈校正諸學士』.

“唐宋八子者 文章之淵府也 … 竊嘗譬之古人焉 昌黎如管子治國 先實其倉廩 次鍊其甲兵 既庶既彊 取之無禁 柳州臨川 如張湯按獄 吏虎而冠 刻核以爲治 綜明以爲名 廬陵 如羊叔子之在荊州 輕裘緩帶 登山臨水 其遺風餘烈 藹然被於江漢之間 蘇氏三父子 老如莊生說劍 光怪百出 長如韓信耀兵 左絳灌而右樊彭 發號出令 變化不窮 少如桓榮稽古 陳車馬印綬 以誇羣子弟 南豐 如卓茂行己 在清濁之間 … 就八家 既選百篇 若其神彩精英 散寓於文字之中者 攬而收之 莫要於手圈 … 世之學文章者 於此乎咀嚼其華實 而駸駸然至於瓊琚韶濩之美 則予所蘄也.”

63) 정조 찬, 『홍재전서(弘齋全書)』 권56 雜著 3, 『示手圈校正諸學士』.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참조하면, 정조는 육지의 문장을 상소문의 표본으로 보고 그 내용이 부지런하고 간절하며 명백하고 솔직하여 비록 거친 장교나 사나운 병졸이라도 그의 글을 읽고 전하며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라 하였다. 전체의 초고에 비견하여 수권하고 『육고수권』 2권으로 완성하였다. 이 책의 발문은 정조의 명으로 원임규장각직제학인 이병모(李秉模)가 작성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는 홍취영의 생애와 활동을 개관한 다음 정조가 홍취영에게 보낸 어찰에 나타난 『사부수권』의 편찬·교정 내용과 그와 관련된 기록들을 연계하여 편찬·교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홍취영은 영조 35년(1759)에 홍낙임의 장자로 태어났으며 자는 희보이다. 정조 10년(1786) 사용, 정조 16년(1792) 금천 현령, 정조 16년(1792)에 강서 현령, 정조 22년(1798) 종 5품직의 전부가 되었다. 홍취영은 정조 10년(1786)부터 정조 24년(1800)까지 사용, 금천 현령, 강서 현령, 전부로서 정조를 도와 측근에서 활동하였다. 순조 즉위년(1800) 7월 4일 종척의 집사에 차임되었다. 하지만 홍취영의 아버지 홍낙임이 순조 1년(1801) 5월 25일 천주교신자 오석충과 교유했다는 것과 혜경궁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의 혐의로 지목되어 제주도에서 사사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홍취영도 타격을 입었고, 그의 기사가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은 순조 22년(1822) 양구 현감(楊口縣監)이다. 이후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몰년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2) 정조가 홍취영에게 보낸 어찰에는 『사부수권』에 대한 교정기록이 남아 있다. 이들 기록과 관련 있는 기록들은 『홍재전서』, 『군서표기』,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현존본 기록 등이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부수권』은 『삼례수권』 6권, 『양경수권』 4권, 『오자수권』 10권, 『팔가수권』 8권 및 『육고수권』 2권의 총 30권으로 편집되었다.

『삼례수권』은 『의례』, 『주례』, 『예기』 중에서 각 2권씩 비견하여 6권으로 완성되었다. 정조는 22년(1798) 6월부터 10월 사이에 『삼례수권』을 비견하고, 10월 17일에 홍취영에게 발췌본 전체의 교정을 부탁하여 10월 24일 전에는 돌려받았다.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초계문신들의 교준 및 서역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삼례수권』은 주자의 「의례」를 본경으로 삼고 「대대례기」를 전으로 삼아서 작업을 하였고, 읽을 때 의심이 나는 부분은 주자의 「경전통해」, 황직경의 「속통해」, 오계공의 「집설」을 참고하도록 권유하였다. 이 책의 발문은 정조의 부탁으로 규장각 제학인 몽오(夢梧) 김종

“奏議必推西京 而劉向 偏於星歷 揚雄 近於縱衡 孔光 婉谷 永嫩 徐嚴 乘壽 弘偃 之徒 驕而誕 汗漫而支離 於唐得一陸宣公 而可以爲法於公車 網繆帳屐 出入戎馬 指劃利病之源 毫分得失之間 勤勤懇懇 明白剝直 雖羸將悍卒 莫不誦傳而流涕 況忠志之士乎 … 切愛其奏狀 反復輪閱 約而節之 爲陸奏約選 仍批圈於全稿 而爲手圈。”

수가 작성하였다.

둘째, 『양경수권』은 사마천의 『사기』 2권, 반고의 『한서』 1권, 범엽의 『후한서』 1권을 비권하여 4권으로 완성되었다. 정조는 『양경수권』 4권을 22년(1798) 9월 25일~29일, 10월 2일~26일까지 비권하였다. 21년(1797) 10월 22일에 『사선』의 교정을 시켰으니 『과정일표』에 제시된 22년(1798) 9월 25일~29일, 10월 2일~26일의 기간보다 앞서 홍취영과 그의 부친 홍낙임에게 수비 작업의 일차 교정을 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양경수권』의 편찬에 있어서 『사기』, 『한서』, 『후한서』의 3책을 택한 이유는 『사기』는 기전체의 대표이고, 『한서』와 『후한서』는 통사이기 때문이었다. 다만 두 책은 취사선택을 하여 서경(장안)은 오봉 이후를 생략하고, 동경(낙양)은 건안 이후를 생략하였다. 이 책의 발문은 정조의 부탁으로 원임규장각제학이었던 체제공에 의해 작성되었다.

셋째, 『오자수권』은 주렴계 1권, 정호 1권, 정이 1권, 장횡거 1권, 주자주희 6권을 비권하여 10권으로 완성되었다. 정조가 22년(1798) 4월부터 10월까지 수권한 『오자수권』은 7월 4일과 7월 6일에 홍취영에게 『주서』와 『대전』의 교정을 지시하였다.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초계문신의 교준 및 교정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10월 24일 사자관 25인이 『오자수권』의 서역을 마쳤다. 정조는 주자의 저작들을 먼저 선집하여 『자양회영』, 『자양선통』, 『주자서백선』, 『주자서절약』, 『회선』 등을 편찬하였고, 공자·맹자·정자·주자로 이어지는 대일통문자를 위해 『오자수권』을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뜻을 잘 이해하고 있는 원임규장각제학 김희에게 발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넷째, 『팔가수권』은 정조가 『어정팔자백선』에서 문장의 규범이 될 만한 것 100선을 뽑아 손수 비권하여 8권으로 완성하였고, 『육고수권』은 정조가 『어정육주약선』의 전체 원고에 비권하여 2권으로 편집하였다. 정조는 『팔가수권』 8권을 정조 21년(1797) 10월부터 12월까지 비권하였다. 10월 22일에 비권하는 중에 홍취영에게 보내서 교정을 하도록 하였고, 12월 22일에는 초계문신이 교준하였고, 이듬해인 2월 23일에는 서역한 사자관들에게 물목을 하사하였다. 정조는 『육고수권』 2권을 22년(1798) 4월 12일~21일까지 비권하였는데, 교정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참고문헌>

姜順愛. “奎章閣의 圖書編撰 刊印 및 流通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9.
구순옥. “외조부 홍봉한에게 보낸 정조의 편지 - 야마구치 현립도서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 『고전 번역연구』 8(2017. 12). 193-261.

규장각 편. 『군서표기(群書標記)』 御定書 3. 서울: 學文閣, 1970.

규장각 편. 『군서표기(群書標記)』 御定書 4. 서울: 學文閣, 1970.

『내각일력(內閣日曆)』 정조 21년 12월 22일.

『내각일력(內閣日曆)』 정조 22년 2월 23일.

- 『내각일력(內閣日曆)』 정조 22년 10월 16일.
『내각일력(內閣日曆)』 정조 22년 10월 17일.
『내각일력(內閣日曆)』 정조 22년 10월 18일.
『내각일력(內閣日曆)』 정조 22년 10월 19일.
『내각일력(內閣日曆)』 정조 22년 10월 24일.
『내각일력(內閣日曆)』 정조 22년 10월 26일.
『내각일력(內閣日曆)』 정조 22년 10월 27일.
『내각일력(內閣日曆)』 정조 22년 10월 28일.
『순조실록(純祖實錄)』 1권, 순조 즉위년 7월 4일(甲申).
『순조실록(純祖實錄)』 3권, 순조 1년 5월 25일(庚子).
『순조실록(純祖實錄)』 25권, 순조 22년 8월 6일(丁未).
『일성록(日省錄)』 정조 10년 윤7월 20일(辛卯).
『일성록(日省錄)』 정조 11년 5월 11일(丁丑).
『일성록(日省錄)』 정조 16년 4월 30일(戊辰).
『일성록(日省錄)』 순조 1년 7월 19일(癸巳).
임재완 편역, 하영휘 교열. 『정조대왕의 편지글』. 서울: 리움, 2004.
丁若鏞 著.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16권 「自撰墓誌銘」.
鄭在薰. “『四部手圈』 解題.” 『四部手圈』 上. 서울: 규장각, 2002. 9-26.
정조 찬. 『홍재전서(弘齋全書)』 권7. 詩 3, 「求諸圈跋於四閣相及文衡」.
정조 찬. 『홍재전서(弘齋全書)』 권56. 雜著 3, 「示手圈校正諸學士」.
정조 찬. 『홍재전서(弘齋全書)』 권165. 「일득록(日得錄)」 5 文學 5.
『정조실록(正祖實錄)』 21권. 정조 10년 5월 11일(癸丑).
『정조실록(正祖實錄)』 21권. 정조 10년 5월 13일(乙卯).
『정조실록(正祖實錄)』 50권. 정조 22년 7월 18일(庚辰).
『정조실록(正祖實錄)』 50권. 정조 22년 11월 30일(己丑).
趙東永. “正祖의 四部手圈 小考.” 『한국한문학회연구』 45(2010). 11-39.
혜경궁 홍씨 지음, 정병설 옮김. 『한중록』. 서울: 문학동네, 2016.
Daum 백과. 재상열전, [검색일자 2019. 4. 5.]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63XX65700022>>
Daum 백과. 흥낙임, [검색일자 2019. 6. 3.]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64007>>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Dong-young. 2010. "A Study on the *Sabusugwon* of King Jeongjo." *The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in Hanmun*, 45: 11-39.
- Hyegyeong, Jung, Byung-sul, tr. 2016. *Hanjunglog*. Seoul: Munhakdongne.
- Ilseongrok*, Jeongjo 10 Yun July 20, Sinmyo.
- Ilseongrok*, Jeongjo 11 May 11, Jeongchuk.
- Ilseongrok*, Jeongjo 16 April 30, Moojin.
- Ilseongrok*, Soonjo 1 July 19, Gyesa.
- Jeongjo. *Hongjaejeonseo*, Vol. 7, Si 3 Kujegwonbaleosagaksang-geubmunhyeong.
- Jeongjo. *Hongjaejeonseo*, Vol. 56, Jabjeo 3 Sisugwongyojeongjehagsa.
- Jeongjo. *Hongjaejeonseo*, Vol. 165, Ildeukrok 5 Moonhak 3.
- Jeongjosilrok*, Vol. 21, Jeongjo 10 May 11, Kyechuk.
- Jeongjosilrok*, Vol. 21, Jeongjo 10 May 13, Elmyo.
- Jeongjosilrok*, Vol. 50, Jeongjo 22 July 18, kyeongjin.
- Jeongjosilrok*, Vol. 50, Jeongjo 22 November 30, kichuk.
- Jeong, Yak-yong. *Dasansimunjib*, Vol. 16. Jachanmyojimyeong.
- Jung, Jae-hoon. 2002. "Sabusugwon Commentray." *Sabusugwon 1* (pp. 9-26). Seoul: Kyujanggak.
- Kang, Soon-ae. 1989. *The Study of Compilation,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Books by the Kyuchangkak*. Docto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ung Kyun Kwan Univ.
- Ku, Soon-ock. 2017. "A Study of Jeongjo's letters sent to his grandfather Hong bonghan - A collection in the Yamaguchi Prefectural library." *The Journal for the Translation of the Korean Classics*, 8: 193-261.
- Kyujanggak ed. 1970. *Koonseopyogi: Eojeongseo 3*. Seoul: Hakmoongak.
- Kyujanggak ed. 1970. *Koonseopyogi: Eojeongseo 4*. Seoul: Hakmoongak.
- Naegakilyeok*, Jeongjo 21 December 22.
- Naegakilyeok*, Jeongjo 22 February 23.
- Naegakilyeok*, Jeongjo 22 October 16.
- Naegakilyeok*, Jeongjo 22 October 17.
- Naegakilyeok*, Jeongjo 22 October 18.
- Naegakilyeok*, Jeongjo 22 October 19.

Naegakilyeok, Jeongjo 22 October 24.

Naegakilyeok, Jeongjo 22 October 26.

Naegakilyeok, Jeongjo 22 October 27.

Naegakilyeok, Jeongjo 22 October 28.

Soonjosilrok, Vol. 1, Soonjo Jeukwinyeon July 4, Kapsin.

Soonjosilrok, Vol. 3, Soonjo 1 May 25, Kyeongja

Soonjosilrok, Vol. 25, Soonjo 22 August 6, Jeongmi.

Yim, Jae-wan tr. 2004. *Jeongjo's letters*. Seoul: Leum.